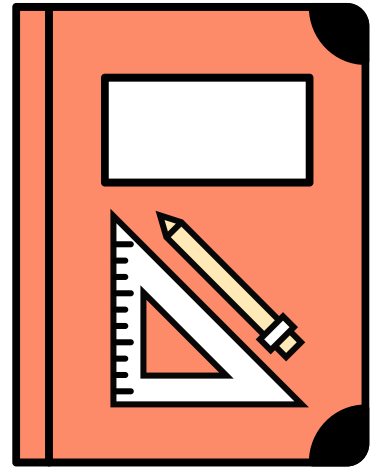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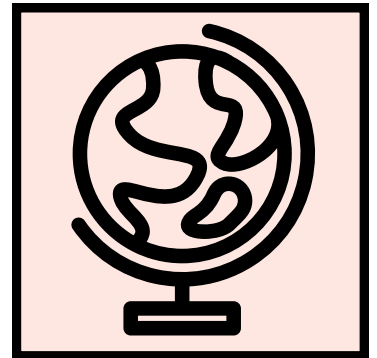


**자본주의가 그려낸
새로운 세계지도
읽는 법**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

교사용



독후 활동 노트

작성자: 이동민 교수님
난이도: 중·고등학생

책을 읽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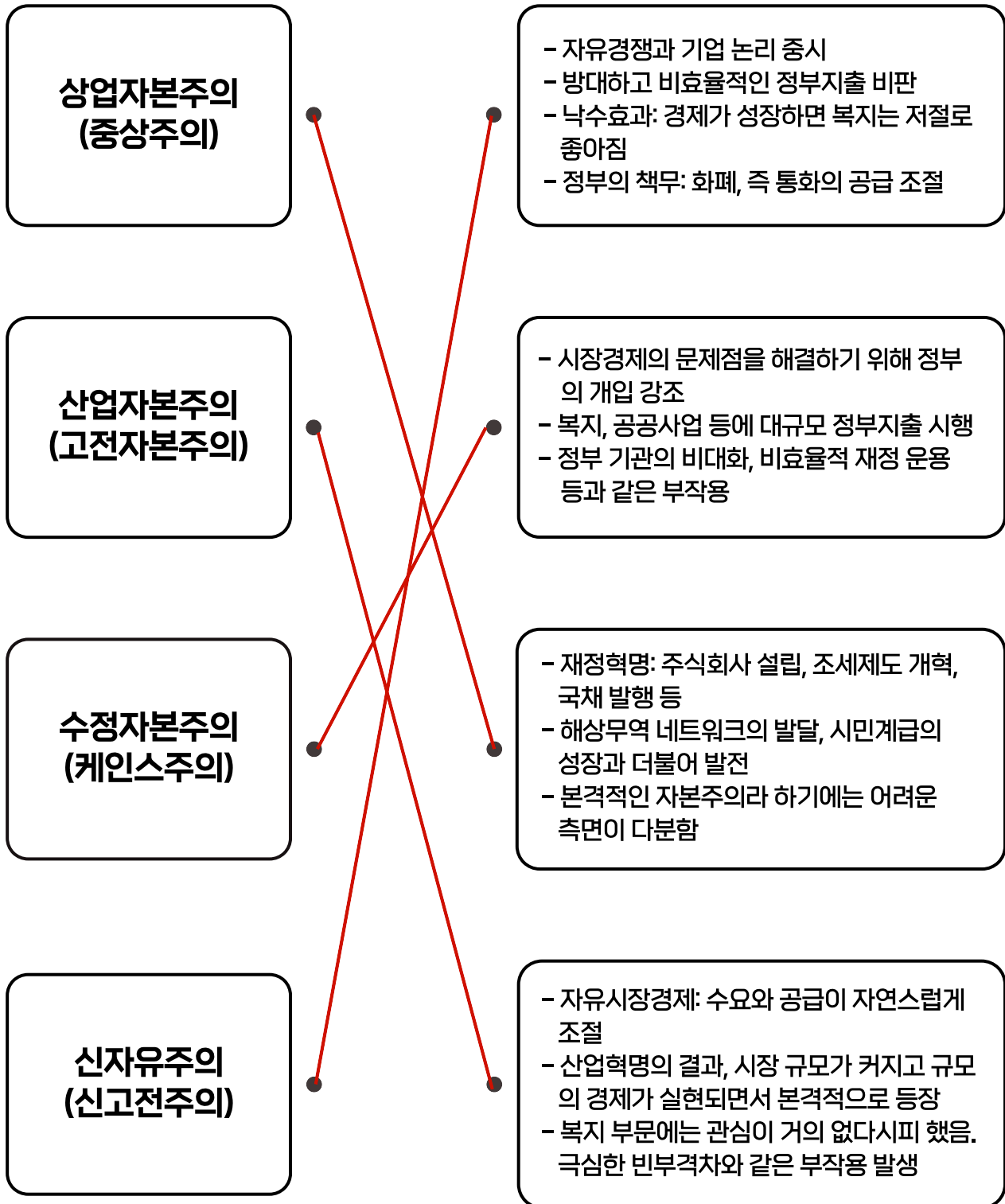
◆ ‘자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자본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책을 읽으며

◆ 자본주의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 네덜란드의 원양 무역 진출이 네덜란드 재정혁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예시 답안)

원양 무역에는 막대한 초기비용과 만만찮은 위험성이 따랐다. 그러다 보니 자금을 마련하고 위험성에 대비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원양 무역의 선발주자인 에스파냐를 따라잡기 위한 자금 마련이 절실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달리, 신대륙 발견과 같은 ‘일확천금’ 식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무작정 모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거나 경제위기에 빠질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주식회사와 신용경제 시스템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에스파냐, 포르투갈보다 훨씬 견실한 경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 본격적인 재정혁명의 싹이 싹트기 시작했다.

◆ 영국이 재정혁명을 완성하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시 답안)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프랑스 육군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바다 건너 네덜란드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 틈을 타 영국은 네덜란드로부터 재정혁명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재정혁명을 완성 지었다.

영국은 섬나라이면서도 국토 면적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특히 잉글랜드는 하천이 발달하고 지형이 험하지 않으며, 석탄과 철광석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략 위험이 적은 섬나라인 데다가 일찍이 왕권과 귀족층의 과도한 특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높은 신용도를 확보하고 견실한 재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다.

◆ 대륙횡단철도와 파나마운하는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예시 답안)

대륙횡단철도 건설로 미국은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한,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에 동시에 연한 광대한 국토를 물리적으로 온전하게 연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토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파나마운하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물리적 장치를 제공했다. 그 결과,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게다가 파나마운하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주면서 세계 물류와 무역이 크게 발전했고, 이는 자본주의 경제 규모의 확대에 이어졌다.

◆ 중국이 일대일로로 통해 유라시아와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시 답안)

중국과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유라시아)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동시에 해양 국가 성격도 강한 미국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지리적 특성을 갖는다. 게다가 자원도 풍부하다. 전통적으로 대륙국가 성격이 강한 중국은 유라시아에 진출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드높이려 한다.

전근대부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도양은 유라시아에 진출하기에도 유리하다. 중국은 유라시아 내륙과 더불어 인도양을 잇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아우른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

책을 읽고 난 후

◆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와 세계 지리를 어떻게 바꾸어 왔을까요?

예시 답안)

물품 교환 수단이라는 지위를 넘어,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상공업과 원거리 무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금융업의 발전과 재정혁
명 덕분에 상공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투자한 돈은 더 큰
수익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세계 경제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금융경제가 발전하면서 신용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자국보다
국력이 월등히 강했음에도 국가신용도는 되레 낮았던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한 것처
럼, 신용도는 채무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 경제와 역사를 바꿀 만큼 중
요해졌다.

산업자본주의로 인해 비서구 세계를 압도하는 경제력과 국력, 군사력을 획득한 서
구 세계는, 19세기에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다. 그 결
과 세계 질서가 서양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비서구 세계는 서구 세계의 침략과 착취
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늘날까지 고통받고 있다.

◆ 자본주의가 지닌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시 답안)

자본주의는 경제 주체들의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며, 성장을 전제한다. 이러한 장점
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여러 단점(빈부격차, 버블) 그리고
위기(파시즘, 공산주의와 같은 강적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
지 못하고 있다.

대공황으로 산업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수정자
본주의의 문제점이 불거짐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 등, 자본주의는 위기의
순간마다 때마다 시스템을 달리하며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 인류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어떤 점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면 좋을까요?

예시 답안)

신자유주의는 환경파괴, 빈부격차 심화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낳은 데다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사실상 그 생명력이 다했다는 이야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경제적 효용이 없다고 확인된 낙수효과에 기대며 성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용안정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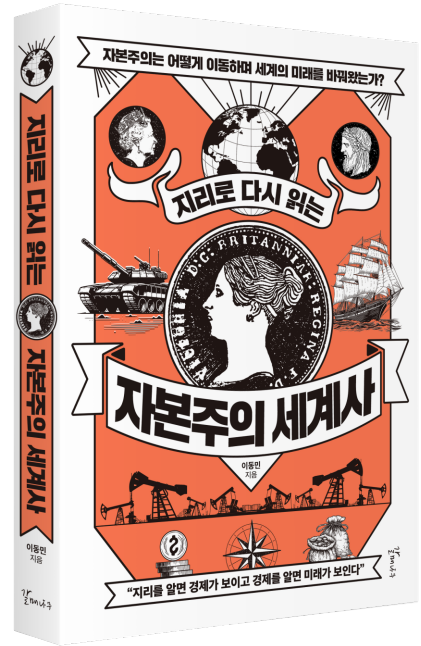
게다가 자본주의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인류 문명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책 소개]

세계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나 변화해 왔는지, 지리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다!

025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염려하는 가운데, 트럼프레이션(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하는 물가상승)이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평균 원 달러 환율이 IMF 때 추세를 따라가면서 그때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시시각각 경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른 나라 정치 상황을 살피는 것은 가격, 이자, 환율, 경기 등 자본주의 환경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매우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모르고선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없으리라는 위기감도 느낄 터다.



전작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에서 지리학자 특유의 시선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안을 제공한 저자 이동민 교수가 이번에는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에서 '지리 문해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역사를 새롭게 살핀다. 특히 최근 지리학계에서 주목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multiscalar approach, 지표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다양한 스케일의 다층적이고도 상호 관련적 초점에서 파악하려는 지리적 관점)'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전방위적으로 훑어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동하며 세계를 바꿔왔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대항해시대에는 세상 거의 모든 부(富)가 에스파냐로 향했지만, 곧 네덜란드로 이동해 갔고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변방의 섬나라였던 영국이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다. 하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던 대영제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그 지위를 미국에 넘겨준다. 한번 중주국이 영원한 중주국은 아닌 셈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냉전시대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탈냉전시대인 오늘날 중국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유럽 여러 국가의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도 과거에 비해 지리적으로는 축소되었을지언정 천연가스와 식량자원으로 유럽 사회를 압박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 ◆ 최초의 주식이 네덜란드 청어 어장에서 비롯했다고?
- ◆ 화려한 메트로폴리스는 왜 불평등 양극화의 진원지가 되었나?
- ◆ 미국은 어떻게 대륙횡단철도로 세계 패권을 바꾸었을까?
- ◆ 베트남은 어쩌다 기후위기의 블랙홀이 되었나?
- ◆ 한국형 신자유주의는 과연 장밋빛 미래일까?

이처럼 세계경제의 중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왜 이동했는지 파악함으로써 자연스레 경제 패권의 다음 향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역사가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또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변신을 거듭해 온 자본주의의 행보와 맞물려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성장을 이어가지만 다중스케일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세계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중스케일적 속성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할 공정한 분배나 도덕적 정의란 공허한 이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경제와 부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리적 질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의미 있는 통찰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